

(...8페이지에 이어)
 소집한 것은 상황이 중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 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군은 한·미 연합 경찰 자 산으로 북한군의 교신 내용까 지 다 파악했다고 한다. 정상 적이라면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직접 주재하거나, 회의 끝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보고를 받고 조치를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잠을 잤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의 직무 유기다.

실제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뭔가 숨기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새벽 종전 선언을 담은 유엔 연설이 국내에 방영 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재를 뿌릴까 우려한 것이다. 김정 은을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뒤로 빠지기로 한 것 아닌가.
 여당 의원들은 “교전 상태 도 아닌데 대통령을 새벽에 깨워서 보고하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즉각 대응했으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그 목숨보다 대통령 새벽잠이 중요한가.
 청와대는 “불꽃 밖에 안 보였다”는 등 대통령 책임을 덮으려고 군 정보의 신뢰성까지 깎아뺏고 있다. 공무원의 ‘월북’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연합 정보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고, 자기를 책임을 덮을 때는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국민이 바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 없을 것이다.

나훈아 작심발언

“국민 위해 목숨 건 왕이나 대통령 본 적 없다”



“KBS가 여기저기 눈치 안 보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KBS 추석 특집 무대서 에 둘러 쓴소리

“눈치 안보고 국민과 같은 소리 내는 방송 돼야”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걸었다는 사람 못봐” 발언도

무려 15년만에 TV에 출연해 ‘대한민국 어게인!’을 외친 가수 나훈아의 눈매는 여느 때보다 인자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무게감은 상당했다. 30일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2005년 이후 처음 TV에 나온 트로트 가수 나훈아는 말 그대로 “무대를 씹어먹을 듯한”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출연료 없이 나왔다라는 나훈아는 ‘홍시’ ‘무시로’ ‘잡초’ ‘영역’ ‘사내’ 등 수많은 히트곡을 한치의 흔들림없이 열창한 것은 물론, 중간중간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제2부-사랑’편에 청바지에 통기타를 들고 등장한 나훈아는 ‘깜짝 MC’로 등장한 김동건이나윤서와 대화 중에 공영방송 KBS를 예뻐라 쓴소리했다. “KBS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여기저기 눈치 안 보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KBS는 거듭날 겁니다.”

소신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훈아는 코로나 방역의 영웅인 의사와 간호사들을 칭송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많이 힘들습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옛날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나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IMF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불이 다 꺼내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 KBS2TV캡처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

2부, 3부에서 이어진 나훈아의 묵직한 입담에 시청자들은 “역시 나훈아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 되라는 나훈아의 말을 명심해라” “나훈아씨가 오늘 KBS에 거듭나라고 말하던데 사장이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훈아가 진짜 애국자다” 같은 댓글을 쏟아냈다.

“(나라가 주는) 훈장을 사양했다고 하더라”는 김동건이나윤서 질문에 나훈아는 또 이렇게 말했다. “세월의 무게가 무겁고 가수라는 직업의 무게도 무거운데 어떻게 훈장까지 달고 삼니까. 노랫말 쓰고 노래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저를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가당치 않습니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가수는 꿈을 파는 사람입니다. 꿈이 고갈된 것 같아서 11년간 세계를 돌아다녔더니 저더러 잠적했다고들 하대요. 뇌경색에 걸려 혼자서는 못 걷는다고도 하고요. 이렇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5선 의원이 “X탕이”



각 시·도 교육청은 수업시간에 막말을 한 교사를 징계한다. 오래전 서울교육청 사례를 보면 한 우리 교사가 “영감탱이 법관 새X들이 시대에 어긋나게 꼴통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영감탱이는 높은 남자를 알보는 말이고, ‘꼴통’은 머리 나쁘고 둔한 사람에게 쓰는 속어다. 이런 말도 학생들 앞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곰탱이’ ‘미련통이’는 행동이 느리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고, 유명 브랜드를 흉내 내 물건은 ‘짜퐁’이라 한다. 이렇듯 ‘~통(이)’ ‘~통’ ‘~탕이’에는 상대를 깔보는 속 뜻이 배어있다. 단어 앞부분에 신체 부위 명칭을 붙인 ‘~눈통이’ ‘~잇통이’ 따위도 점잖은 입은 차마 삼가는 말이다.

그런데 한 글자로 된 성기(性器) 이름을 앞에 붙이면, 보통 사람은 평생 쓰기 힘든 천박한 욕설이 되고 만다.

▶5선(選) 중진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그 욕설 ‘X탕이’를 썼다. 한 민간 투자자가 경기 오산에 조류 테마 파크를 지으면서 이곳이 지역구인 안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지금 공사는 의형서와 (다르다...) 해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냈는데, 40분 동안 답장이 없자 “X탕이가 답이 없네”라는 문자를 또 보냈다.

▶충격을 받았을 상대가 잠시 뒤 “5선 의원님께서(...) 선의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밤마다 문자에 이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까지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갔다.

양해 바란다”고 짧게 사과했다. 나중에 이 투자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도 했다. 안 의원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자 같은 당 도의원조차 “무소불위 안하무인”이라고 비난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입을 다물고 있던 사업가가 지난 주말 내용을 전격 공개한 뒤 안 의원을 성토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토가 나올 것 같다” “본인에게 욕을 돌려주자”고 했다. 과거 안 의원의 언행도 불려나왔다. “최순실 비자금 찾아온다더니 어찌 됐나.” “당장 윤지오부터 데려오라” 등이다. 안 의원은 ‘최비자금’은 30조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었다. 이 액수가 황당하다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블랙코미디가 된 윤지오 소동을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이 안 의원이기도 하다. 윤씨가 이상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소동을 벌였다. 안 의원은 욕설 파문이 커지자 “친한 후배에게 보낸다는 게 실수였다”고 했다. 이 정도가 이들과의 일상 언어인 모양이다.

게 똑바로 걸어다니는 게 아주 미안해 죽겠습니다. 하하”

노래는 언제까지 부를 것이라는 질문에 나훈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려올 자리가 시간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제는 내려올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게 길지는 않

을 것 같습니다.”

나훈아의 ‘소신’과 ‘자유로운 영혼’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사전행사로 열린 남북 예술단 평양 공연에 나훈아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일찌감치 화제가 됐다. 평양을 방문한 도종환 당시 문화부

장관에 따르면, 나훈아가 평양에 오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스케줄이 바빠서 못 왔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국가가 부르는데 어떻게 오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었다.

가 자 여행 행사

캐나다 동부투어 및 미 동부투어 상품

1.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2.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3.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미서부 투어 상품

1.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2.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3.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4.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5.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6. 엘로스톤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

유럽 투어 상품

1.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2. 핵시 서유럽 6박 7일
3. 이태리 일주 7박 8일
4.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5. 동유럽 7박 8일
6. 발칸 일주 11박 12일
7.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8.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9.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에어 캐나다 세일 대한항공 세일

대/한/항/공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유럽 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